

세계유산센터 산책로

총 길이 520m의 세계유산센터 산책로는 센터 뒤편부터 센노산 전망대까지 이어져 있습니다. 센노산 주변은 1500년대 중반 이후 이와미 은광이 발전해 나갔던 장소입니다. 산책로를 따라 올라가면 잠시 앉아서 한숨 돌릴 수 있는 휴게소로 직접 연결되고, 거기서 왼쪽으로 꺾어 편백나무 숲을 빠져나오면 전망대 아래로 나오게 됩니다. 지역의 전체 모습을 파악할 수 있는 이 전망대에서는 오모리 마을, 야마부키 성터, 일본해 연안, 다이센오키 국립공원 내에 자리한 해발 1126m의 산베산과 그 분화구를 에워싼 6개의 봉우리 등 주요 관광지의 일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. 전망대에서 다시 1.5km를 더 올라가면 센노산 정상 부근에 있는 이시가네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. 이시가네는 은광이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었던 시기에 대규모로 형성된 마을 터입니다. 혹은 2km를 내려가서 오모리의 긴잔(은광) 공원으로 향할 수도 있습니다. 이 산책로와 그 외 직접 연결되는 다른 코스가 모든 경로에 표시되어 있지는 않으니 전망대부터 좀 더 걸기를 원하시는 분은 센터의 인포메이션 데스크에서 무료 지도를 챙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